

시각·미각 사로잡았다… 요즘 사람들의 이유있는 ‘가전구매’

특정 목적에 따라 추가가전 구입
가전업계, 아이디어 상품 출시 봇물
LG전자 ‘스탠바이미 고’ 유럽서 찬사
삼성 갤럭시 작품 4K 화질 ‘더 프레임’

캠핑을 즐긴지 5년 여 된 캠핑족(族) 김영아(35)씨는 최근 빔 프로젝터를 눈여겨 보고 있다. 캠핑 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만큼 주요하게 살펴보는 기능은 ‘휴대성’이다.

김씨는 “집에도 빔 프로젝트가 있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엔 좀 커서 구입하기로 했다”며 “야외에서도 어두워지면 텐트를 스크린 삼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캠핑족들은 분위기를 돋울 감성적인 영상을 틀어두기도 하고,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영화를 감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기본가전의 대안으로 추가 구입하는 가전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오디오와 스피커의 다른 목적 대안으로 카세트테이프가 나왔다. 전과 다른 것은 기능과 품목에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모바일폰 등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가전으로는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꼽을 수 있다.

‘1가구 1가전’의 시대가 저물고 ‘1할



LG전자가 오는 24일까지 서울 롯데월드몰에서 신개념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통나무 산장 콘셉트의 캠핑 공간에서 LG 스탠바이미 Go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

동 1가전’의 시대가 열렸다. 한 개의 가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겸하는 대신 특정 목적에 따라 추가 가전을 구입하는 추세 가 확산하고 있다. 가전은 과거 한 가정에 텔레비전 1개, 냉장고 1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주료가전은 한 대만 구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 규모가 세계 선진 수준에 이르고, 전자업계는 기술 발전으로 중저가 가전 출시가 가능해져 부유층이 아니라도 같은 기능의 가전을 여러 대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음악을 듣는 등 청각적 만족을 위해 가전을 추가했지만 요즘은 시각과 미각까지 추가한 가전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됐다.

18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 사이 같은 기능이라도 각 목적에 맞춰 가전을 여러 대 구입하면서 가전업계도 전에 없던 아이디어 상품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냉장고는 업계에서 이미 목적에 따라 특화된 제품이 시장에 쏟아진지 오래다. 1976년 프랑스에서 처음 유로가브

(EuroCave)가 와인 냉장고(와인셀러)를 내놓으며 특화형 냉장고는 현재에; 이르러 이동용 냉동고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유래없이 국내에서는 특화형 냉장고 중 김치냉장고가 폭발적인 인기다. 위니아가 1995년 출시한 담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보급률이 90%에 이르렀다.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들은 모두 95% 이상에 이른다.

영상가전인 텔레비전은 2018년 경부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텔레비전의 고정된 한정적인 크기에서 벗어나 더욱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미니 빔 프로젝트를 주목했다. 최근에는 아예 이동용 스크린으로 불리는 스크린이 인기다.

LG전자가 지난 5월 출시한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고(GO)’는 이달 독일 베를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2023에서 “최고의 제품(best in show)”라는 찬사를 받았다. 영국 트러스트리뷰(TrustedReviews)는 스탠바이미 고를 “IFA 2023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이자 언제 어디서든 넷플릭스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캠핑·여행 장비”로 평가했다.

스탠바이미 고는 출시 한 달만에 1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호평을 얻은 이동식 영상가전 ‘스탠바이미’의 후속작이

다. 스탠바이미는 27형 텔레비전으로 일반 텔레비전보다 작지만 무빙스탠드로 집안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스탠바이미 고는 이동 편의성을 더욱 극대화해 야외를 무대로 삼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세계적인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이 보유한 세계적인 명작 38점을 엄선해 삼성 아트 스토어에 추가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아트 콘텐츠 구독서비스로 2017년 첫 출시한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The Frame)’에 전 세계 유명 미술관·갤러리의 2300여 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삼성전자 측은 “더 프레임이 단순히 명화를 TV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명암과 색감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도 센서 기술’을 통해 선명한 색채와 강렬한 붓 터치까지 정교하게 재현해준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집에 있음에도 다른 활동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구입한 전자기기들은 대체로 청각과 소리와 관련된 기기들이었다”며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전자기기의 내구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게 돼 대형 가전들이 담당한 시각과 미각과 관련한 기기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oeul.co.kr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인재확보 나서

조지아공대와 핵심 기술 협업
배터리·수소에너지 등 협력
기술·인적 교류 통해 성과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조지아공대와 배터리, 수소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학 협력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체결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앙헬 카브레라 조지아공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유수 대학과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정의선 회장은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건설 현장 방문 당시 조지아공대와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공대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학 평가 기관인 THE와 QS가 올해 발표한



소니 퍼듀 조지아주 공립대학 협의회 의장(뒷줄 왼쪽)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뒷줄 오른쪽)이 박수를 치고 있는 가운데 차우키 압달라 조지아공과대학교 연구담당 수석 부총장(앞줄 왼쪽부터), 앙헬 카브레라 조지아공과대학교 총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COO)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글로벌 공과대학 순위에서 각각 11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린 연구중심 공립대학이다.

정몽구 명예회장 때부터 이어진 조지아주와의 각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바 있다. 2006년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기아 사장은 기아의 미국 첫 생산기지 위치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로 선정했다. 조지아주의 우수한 입지조건, 소니 퍼듀 주지사를 비롯한 조지아주의 적

극적인 협력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니 퍼듀 당시 조지아 주지사는 현재 조지아주 공립대학 협의회 의장으로 향후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의 산학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차그룹 신설 전기차 생산 거점이 조지아주에 집중돼 있어 활발한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성과가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

특허 보유 中 10곳 중 1곳 ‘기술탈취’ 경험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피해사실 입증에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에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2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었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에 대해선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차세대 철도통신망 ‘이음 5G-R’ 구축

4.7GHz 주파수 대역 사용

SK텔레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철도통신망 이음 5G-R 통신 시험망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음 5G-R은 5G 기

반 철도통신망으로, 35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5G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번 시험망에서는 4.7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음 5G를 활용한다. 현재 국내 철도에는 LTE망을 활용하는 LTE-R이 적용돼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음5G-R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5G SA 기반의 이음 5G-R 시험망 구축 및 커버리지 연장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철도 특화 서비스, QoS 실증 등이 진행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폐기물 재활용률 100% 달성

삼성SDI는 국내 전 사업장이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인 UL 솔루션즈(UL Solutions)의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20일 삼성SDI는 삼성SDI 기흥과 청주 사업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기물 재활용률 100%를 달성해 2년 연속 플레

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각각 플래티넘(100%), 골드(99~95%), 실버(94~90%) 등급으로 나뉘며,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로 활용된다. 천안, 울산, 구미, 수원의 사업장도 올해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국내 모든 사업장이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